

사설

중앙신도회의 앞날

부처님이 열반에 드실 무렵 부처님의 장례문제를 걱정하는 스님들에게 "그것은 너희들이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신앙심 깊은 재가자들이 여법하게 여래의 장례를 치러 줄 것이다"는 요지의 말씀을 하신 것은 출가자와 재가자의 본분과 사명을 분명히 하신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비록 시대와 지역에 따라 출가자와 재가자의 역할 분담에 차이를 보일 수는 있어도, 근본적으로 의지해야 할 것은 역시 부처님의 말씀이다.

이러한 근본에 비추어 본다면 지금의 출가자와 재가자의 위상에는 분명 큰 잘못이 있다. 재가자들이 출가 스님들이 진정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외호하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해온지 오래고, 그것이 고질화되어, 이제는 재가자들이 마땅히 맡아야 할 영역까지도 출가자들이 맡는 것이 관행화되었다. 재가자들 속에서든 승단에 대한 진정한 공경의 길을 찾고 재가자와 출가자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려는 노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시도는 스님과 재가자 양쪽으로부터 배도되고 소외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은 조계종 재가신도를 대표하는 기구인 조계종 중앙신도회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15일로 창립 1주년을 맞는 중앙신도회가 그동안 어떤 위상을 지니고 어떤 일들을 해 왔느냐고 물기에는 그 출범부터의 기간이 너무 짧았고, 또 과거 전국신도회가 뿌려놓았던 나쁜 인상을 씻고 새로운 모습을 모색하기에도 바빴는지 모른다. 그러나 얼마 전부터 회장이 사퇴의사를 표명하는 등 그 앞날이 평탄치 않음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그 조짐은 단지 회장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우연한 일이 아니고, 중앙신도회가 가진 본질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새삼 그 앞날

이 걱정되는 것이다. 회장이 사퇴의사를 표명하는 이유로 거론되는 몇가지 이유들을 보라. 신도교부금 적립금 일부를 중앙신도회 운영비로 지원받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총무원 지원이 전혀 없거나 거의 송환장 개인의 출연으로 중앙신도회가 운영되는 방식을 지속하기 어렵다. 그 출발부터가 출가 승단의 지도 아래서 타율적으로 이루어진 중앙신도회의 종속적 운명이 드러나지 않는다.

재가자들을 대표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사부대중의 두 기둥으로 바르게 설 수 있는 조직체와 위상을 갖추지 못하고, 개인의 회생에 의존하거나 종단의 지원에만 매달리는 신도회의 모습은 우리 불교계 재가불자운동의 현주소가 아닐까. 여기에는 중앙신도회가 단지 상징적으로 재가자들을 대표하며 승단의 틀리리로서 명실상부한 재가불자의 위상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해 온 중앙신도회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이제라도 진정한 재가불자의 대표기구로서 새로 나는 힘든 과정을 거치려는 각오를 하지 않으면 회장 사퇴의 소용이 수습된다 하더라도 참다운 중앙신도회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자율적으로 천만 불자들의 뜻을 수렴하여 승단을 외호하며, 재가자들의 참다운 신행운동을 일으켜 가는 구심점이 중앙신도회라는 것을 안팎에 새롭게 천명하고, 새로운 걸음으로 당당하게 시작하라. 이것이 너무 지고 포기하려거든, 회장의 사퇴 소동 등 파문을 겪으면서 제대로 위상조차 못 세우고 차츰차츰 사그러 들기보다는 차라리 어떤 형태로든 결단을 내려 그를 통해 천만 불자들이 재가불자의 본분과 위상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계기를 주는 것이 옳을 것이다.

“포교사 보내드립니다”

조계종 포교사단 '포교센터' 19일 개설 사찰·신행단체 요청때 포교사 알선

조계종포교사단(단장 성타)은 포교사를 필요로 하는 곳과 포교활동을 원하는 포교사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포교센터를 포교사단 사무국이 개설, 19일부터 운영키로 했다.

포교사단 사무국은 8일과 15일 열린 서울·경기지역 포교사연수회에서 1백50여명의 포교사들에게서 포교센터 참여

신청서를 받았으며, 포교사를 필요로 하는 사찰이나 단체, 시설에서 요청하면 이들을 소개시켜 줄 방침이다. (신청문의 전화 02-737-7588, 팩스 02-720-7065)

포교사단은 또 부처님오신날 이후 △어린이·청소년 △사회복지 △직장 △사찰 △특수포교(군·교도소) 분야로 나눠 전

문분야 워크숍을 실시, 워크숍 이수자를 우선적으로 원하는 곳에 연결해줄 예정이다. 워크숍은 강의와 토론, 현장교육 등으로 진행된다.

포교사단 사무국은 수원교도소의 요청에 따라 신입재소자 정신교육을 담당할 4명의 포교사를 3월초 추천하기도 했다.

포교사단 임용현 사무국장은 “포교사들의 효율적 활용과 포교활동을 위한 포교센터는 취지로 포교센터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교계 IMF쉼터 연계프로 필요

구직정보 공유·공익사업 전개등

최근 교계에서 운영중인 실직자 쉼터들의 보다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직자들을 위해 문을 연 교계 쉼터는 종단형 오뚜기쉼터,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 불암사 자비의 쉼터, 광주 광복사 무동쉼터, 직지사 나뉘는 쉼터 등 비록 10여곳에 이른다. 이들은 한결같이 구직관련 프로그램과 참선, 사경 등 정신수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지로 실직자의 취업알선이 어렵고, 또 몇몇 쉼터는 이용자가 거의 없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불교계의 쉼터들이 보다 긴밀한 연대를 통한 포괄적 네트워크를 형성, 정보교환과 프로그램 운영의 다각화 등 문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하루평균 20~30여명이 찾아와 취업을 상담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보여온 오뚜기쉼터의 경우 최근 각 언론매체, 중소기업중앙회, 노동부 인력관리공단 등이 실직자를 위한 일자리 구해주기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내방자가 급격히 줄었다. 오뚜기쉼터 서동석실장은 “초보적인 수준에서 나아가 실직자들의 개인성향 등을 설문조사해 자료로 활용하고, 실직자들을 흡수할 수 있는 공익사업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칼럼 23면〉

해인사 총림-상림회 갈등심화

각종 불사 이견...유혈충돌까지

총림 임의단체 인정 불가

상림회 불사 대중공청회 요구

해인사가 추진중인 각종 불사에 대해 의견을 달리해 온 해인총림문중협의회, 상림회와 해인사 총림간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해인사문중협의회와 상림회 소속 스님들은 6일 오후3시 대구 성화사에서 모임을 갖고 △총림회의의 확대개편 △대규모 불교단지 조성불사의 타당성 검토와 전통사찰의 조형에 맞는 건축을 위한 대중공청회 개최 △성철스님의 사리탑 공사 중지 등 해인사 전체의 비립 조성계획 수립후 공사 진행 등 4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문중협의회와 상림회 소속 스님 20여명은 이 결의문을 총무소에 전달하기 위해 밤 9시경 해인사에 도착했으나 사중

측 스님들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유혈 충돌이 발생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몸싸움을 벌인 성공, 심적스님은 각각 전지 2주각량의 상처를 입고 병원에 입원중이며 성공스님은 심적스님을 폭행 등의 혐의로 거창지청에 고소했다.

이와관련 해인사측은 10일 총림 명의로 '사부대중에게 알리는 글'을 통해 △총림회고 의결기구인 임회를 존중하며 어떠한 일의 단체도 인정하지 않는다 △총림질서를 어지럽히고 수행정진을 저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에 반하는 자는 해중 해사행위자로 의법조치한다 등 4개 결의사항을 밝혔다.

문중협의회와 상림회도 성화사에서 4개 결의사항 등을 재천명하는 '우리의 입장'을 발표했다.

해인사는 성철스님 사리탑 공사, 불교문화단지조성 등 각종 불사와 관련 문도간의 이견으로 95년부터 갈등을 빚어왔다. 해인사는 작년 10월 16일 백련문도회와 상림회, 총무소 임자가 참여하는 9인위원회를 구성, 성철스님 사리탑 건립문 제등을 위임 받았었다. 지난날 10일 해인사는 임회를 통해 성철스님 사리탑 공사를 진행하되 108경으로 계획된 기단석의 규모는 추후 조정키로 했었다.

해인사의 이번 사태는 한 총림안에서 수행하는 문도들간의 이견이 사회적인 물의로 확대되어 불교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문도간 갈등의 원인으로 성철스님 사리탑이 거론되고 있는 것은 이미 입적한 '큰 스님'의 위상마저 실추시키는 것이란게 중론이다.

종교계 복돋기장구 통일부, 긍정적 검토

정부가 대북식량지원 장구를 종교단체에도 허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어 앞으로 교계 북한돕기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정부는 현재 불교와 천주교, 기독교 등 각 종교단체들이 연계해 식량을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현재 성금액 3억4천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민족화합 불교추진 위원회는 빠른 시일내에 북한 식량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시범승가대 선정지원 조계종 교육원

조계종 교육원(원장 압도)은 98년도 제1차 교직자회의를 열고, 사미니 승가대학 정원 확대, 시범승가대학 선정 지원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술논문 창작을 위한 교수연구비를 분기별로 지원하기로 했으며, 승가대학의 전공필수 과목외에 특강과목 개설시 계획안 검토를 거쳐 예산 및 강사를 지원하기로 결의했다.



◇지난 11일 열린 교계 복지시설·단체장 스님 간담회.

“깨달음과 복지불사 둘 아니다”

조계종 복지시설·단체장 스님 간담회

“깨닫지 못하고 중생 구제에 나서면 그들을 구원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라는 ‘혜제일주’의 가 문제제기다. 수행과 복지불사는 과연 반대 개념일까. 지난 11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 이사 월주)이 창립 3주년을 기념해 처음으로 마련한 교

계 복지시설·단체장 스님 간담회에서는 이 같은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 결론은 “보현·보살행이 없는 초세간적 禪위주의 불교는 대승불교가 아니다”는 것.

불교복지사업의 상호연대와 협조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서 대

승보살사상 위주의 교육종교가 조성돼야만 깨달음의 사회화도 앞당겨질 것”이라면서 “복지불사가 종단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재〉

“복지불사 종단차원 지원 월주스님 약속”
 재교육과 제도적 뒷받침 △승가대 복지학과 △승가대 현장 교육 강화 △장애인복지의 강화 △종단간부 스님들의 1일 장애체험 △중 앙승가대 기원학사의 장애인 복지관으로의 전환 △자녀봉사자의 양성 등에 의견을 모았다.

현대만평 박구원 737-8881

현대만평



포교가 필요한 곳이면...

佛事에도 未來가 있습니다.

신라의 김대성이 조성한 불국사와 석굴암은 당시에는 최첨단의 획기적인 조형양식이었습니다. 그리하여 12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민족의 우수성을 자랑하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이루어진 불사들을 대할때면 미래의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으로 남을 수 있을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습니 다. 과연 우리시대의 불국사와 석굴암을 조형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 일까요. 미의식이 한층 높아진 현대의 사부대중은 불교미술의 역사적 역할을 매우 소중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불교 조형연구소는 조경에서부터 건축설계·불상·불화·단청등에서 정성을 다한 창조적인 불사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조형연구소
 미래불교
 285-2369 285-5963